

[시나리오]

S#1      빵집                      낮

빵집 유리창에 붙어있는 구인종이.

“알바 구함. 숙식제공. 시급 8 천원. 시간 오전 8 시-오후 5 시”

누군가가 구인종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숙식제공'에 꽂혀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가게 안에서 혼자 더러운 테이블을 닦으며 투덜대고 있는 할머니.

          할머니                      (통명하게) 뭐 드려요?

          민서                      (우물쭈물) 사람 구하셨나요?

할머니는 말 없이 들어온 사람을 주욱 훑어본다.

짧은 머리에 박시한 상의, 추리닝 차림의 민서. 게다가 슬리퍼까지 신었다.

할머니의 눈빛에 자기도 민망한지 발가락을 꼼지락댄다.

멀뚱히 서 있는 민서를 두고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민서가 의욕 넘치게 다가와 테이블을 번쩍 들고 옮기려 한다.

황당한 할머니는 민서를 밀어내고, 문까지 밀린 민서는 문 옆에 있던 대걸레를 집어 바닥을 막

닦기 시작한다. 그러다 물통이 엎어지고, 당황한 민서는 순간 정지한다.

정적이 흐르고... 조용히 물을 닦은 민서는 물통과 대걸레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구벽 인사한 뒤 가게를 나선다. 밖에서 또 망쳤다며 혼자 자책하는 민서.

S#2      빵집 앞                      낮

다음 날, 가게 오픈을 위해 문을 여는데 뭔가 이상하다.

옆을 보자 화분이 전과 달리 줄세워져 있다. 똑같은 꽃이 두 종류씩 있는 화분.

뒤에 있던 민서가 눈치를 보며 머쓱하게 웃는다.

그런 민서를 보자마자 골치가 아픈 할머니.

          할머니                      야! 화분을 이렇게 두면 어떡해!

민서가 후다닥 와서 화분을 제자리에 두는데, 꽃 하나가 부러진다.

헉! 하고 할머니의 눈치를 보는 민서. 할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쉰다.

          할머니                      너, 이..!

몽타주

할머니가 방금 출근을 한 듯 풋말을 오픈으로 돌리고 있다.

그때, 멀리서 민서가 걸어오는 게 보인다. 그런 민서를 보고 얼른 클로즈로 바꾸는 할머니.

그리고는 가라는 듯 팔짱을 끼고 민서를 뺨히 쳐다보고 있다.

가게 홀에 밀가루 포대가 놓여 있다. 혼자 킁킁대며 창고로 옮기고 있는 할머니.

이번에도 나서서 자기가 하겠다며 포대를 받아 들고 돌아서는데,

밀가루가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살짝 찢어진다.

이를 모르고 계속 걸어가는 민서 뒤로 하얀 밀가루가 쪽 떨어져 있다.

야야! 하는 할머니의 경고에 놀란 민서, 뒤를 쳐다보면 밀가루가 보인다.

빗자루를 던지며 소리지르는 할머니.

맛을 뺨 한 민서는 재빠르게 피하며 빗자루를 집어 들고 죄송합니다 하며 바닥을 쓴다.

가게 앞에 놓인 칠판에 촌스러운 모양새로 '오늘의 빵 000'이 덩그러니 쓰여 있다.

이를 본 민서, 칠판을 속속 지우더니 예쁘게 꾸며 놓는다.

그런 민서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할머니.

민서가 밖에서 가게 유리창을 열심히 닦는데,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진다.

눈이 마주치자 더 열심히 닦는 민서.

가게를 청소하던 민서, 가게 한쪽에 진열된 할머니의 상장, 자격증과

상 탈 당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와 하고 감탄한다.

빵에 슈가파우더를 뿌리고 있는 할머니.

할 게 없을까 눈치를 보던 민서가 하얀색 가루를 집어 똑같이 뿌린다.

그런데 어김없이 들려오는 할머니의 호통소리.

할머니        야! 슈가파우더랑 소금을 헛갈리는 놈이 어딴어!

할머니가 포장을 하는데, 옆에서 포크나 필요한 걸 속 건네는 민서.

할머니는 아, 하고 포크를 받아 든다.

쉬고 있는 할머니 옆으로 흰색 머그잔이 스윙 들어온다.

할머니는 떨떠름하게 보더니 집어서 마신다.

민서가 칠판에 어설피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할머니로 보이는 캐릭터와 민서로 보이는 캐릭터가 유리창 끝에 서 있다.

몽타주 끝.

S#3      옥상      밤

어두운 옥상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할머니. 고민에 빠진 듯 보인다.

민서                      사장님! 마감 끝났어요.

민서의 목소리와 함께 옥상 불이 켜진다.

달려와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의 맥주를 한 모금 마시는 민서.

짜려보는 할머니. 민서는 눈치채지 못하고..

민서                      (가져온 봉지를 꺼내며) 남은 빵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                    너 혼자 먹어라.

민서                      (빵을 맛있게 먹으며) 진짜 맛있어요.

민서는 빵을 먹느라 정신이 없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여기 붙어있냐.

민서                      제가 사실 좀 급해서요. 다음 주에 집을 빼야 되는데, 숙식을 제공해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할머니                    부모님은?

민서                      면목이 없어요. ...피디 딸 보고 싶어하셨는데, 되지도 못하고. (생각하다가) 근데요, 저 사실 방송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지한 민서를 바라보는 할머니.

민서                      (힘이 빠진 듯 옥상 불을 보며) 좋긴 좋죠. 불빛처럼 밝고, 화려하지만 제 별이 보이질 않아요. 안 보이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 제 인생은 진짜 흘러가는 대로만 살았어요.. 내키지도 않는 일만 열심히 하고.

할머니                    (비웃으며) 네가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인생 얘기를 하고 있어. 니네 나이

때가 좋은 거야. 나는 고민까지 점점 희미해져.

민서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답답한 할머니가 맥주를 들어서 마신다.

할머니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봐야 하는 거야.

말을 하며 옆을 보는 할머니.

민서가 빵을 여러 개 겹쳐서 입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할머니                야야야, 빵을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빵은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하는  
거야.

또 잘못했나 싶은 마음에 조심스러운 민서.

할머니                됐다, 너 같은 애한테 내가 무슨..

자리를 뜨려던 할머니, 멈춰서서

할머니                할 거 없으면 내일 10 시까지 가게 앞으로 나와.

운전 좀 해. 돈 줄게.

민서                    어디 가세요?

할머니                나오거나 해. (불을 끄는)

혼자 남은 민서가 하늘을 쳐다본다. 가만히 생각하는 민서.

S#4                    꽃밭        낮

차에서 내리는 민서와 할머니. 멀리 펼쳐진 꽃밭에 민서가 이런 곳이 있었냐며 놀란다.

민서                    사장님, 웬 앞치마예요?

보면, 반 앞치마를 하고 있는 할머니.

할머니                탈 때 얘기 해줬어야지!

앞치마를 벗어 차에 탁 버리듯 놓고, 꽃밭으로 향한다.

신나서 꽃밭을 돌아다니는 민서. 꽃을 따던 할머니는 뿌듯한 표정이다.

민서                    (옆으로 다가와) 와, 예쁘다!

할머니                예쁘지. 근데 다음주면 보고 싶어도 못 봐. 실컷 봐라.

민서                    그래도 부럽다.. 꽃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피고 있잖아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알아.

민서                    꽃이 이대로 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니깐 그런 거죠.

할머니                그건 모르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만 자랐는데. 애네한테 다른 선택권이  
없어. 그저 피는대로 피는 거지.

민서 가만히 꽃을 바라본다.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민서                그럼 어떡해요?

할머니                뭐든 시도를 해보야지. 꽃 따!

민서                뭐 하시게요?

할머니, 대답을 안 해주고 꽃밭을 걷는다.

민서가 그 뒤를 따라 간다.

S#5                빵집                (몽타주)

각 잡고 유니폼을 정리하는 누군가의 손.

앞치마의 리본을 매고, 착착 소매를 접는다.

셔츠 깃을 정리한 뒤 어깨의 먼지까지 탁탁 털어낸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반듯하게 쓰는데, 얼굴을 비추면.. 할머니다.

민서는 그 옆에서 대충 리본을 묶고는 할머니를 보며 따라서 모자를 쓰고 있다.

손에 든 이름표에 '이서민'이라고 적혀 있다.

민서                사장님, 저 민서라니까요!

할머니                민서든 서민이든 알게 뭐야.

입이 비뚤어진 민서, 이름표를 달았다. 새싹난 화분이 그옆에 놓여 있다.

부엌에서 진지하게 눈을 감고 팔을 벌리고 있는 할머니. 손엔 밀가루가 묻어 있다. 박수를 탁 치면,

밀가루가 날린다. 숨을 내 쉬고, 들이 쉬며 밀가루 가득한 공기를 느끼는 할머니. 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드는데, 분위기에 맞게 전등이 깜빡 거린다.

놀라서 뭐지? 하는데 모자를 빼뜰게 쓴 민서가 옆에서 스위치를 껐다 켜다 하고 있다.

Cut to 할머니가 똑같이 진지하게 팔을 벌리다 밀가루 묻은 손으로 박수를 탁 친다. 옆을 보면, 몇

대 맞은 듯 머리를 문지르고 있는 민서.

눈치를 보다 밀가루를 손에 묻히고 할머니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

따라서 박수를 탁 치는데, 밀가루가 날리고 기침이 나온다.

할머니가 열심히 저울에 무게를 달아가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민서는 열심히 고개만 고덕인다. 그런 민서에게 공책과 펜을 건네는 할머니.

어영부영 받아 든 민서는 할머니의 말을 받아 적는다.  
능숙하게 반죽을 하고 있는 할머니의 손.  
옆에선 민서가 할머니의 말을 따라 어설피게 반죽을 하고 있다.  
할머니가 세척한 꽃을 건진 뒤 면포를 이용해 짜낸다.  
보라색 (꽃 색깔) 물이 나오고, 이를 이용해 보라색 반죽을 만든다.  
보라색 반죽과 하얀 반죽을 섞어 모양을 잡고, 오븐판에 줄지어 올려놓는다.  
팬이 빠졌다가, 다시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 다 익은 빵이 놓인 채다.  
냄새를 맡은 할머니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서가 빵을 하나 집어먹고는 엄지를 치켜든다.  
그런 민서 뒤로 어느새 조금 자라난 새싹이 보인다.  
할머니가 중간 중간 민서를 지적한다. 점점 능숙해지는 민서. 전과 달리  
깨끗하게 반죽을 완성한 민서가 좋아하고, 할머니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 있다.

S#6 민서 방 밤

꾸벅꾸벅 졸며 공부를 하고 있는 민서.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한다.

S#7 빵집 낮

꽃잎을 따는 할머니, 할머니의 도움으로 꽃빵을 만들고 있는 민서.

S#8 민서 방 밤

머리를 책상에 박고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책을 펼친다.

책을 펼치면서 책갈피를 꺼내는데, 할머니와 함께 딴 꽃으로 만든 책갈피다.

S#9 빵집 낮

민서가 빵을 예쁘게 성형하려고 노력한다. 오븐에 콩빵을 넣는다. 그런 민서를 지켜보는 할머니.

할머니 옆에 놓인 민서의 화분이 더 자라 있다.

S#10 빵집 낮

창고로 향하는 할머니를 붙들고 먹어보라는 듯 자신의 빵을 내미는 민서.

할머니가 빵을 베어 물고, 민서는 반응을 기다린다.

그런데 할머니는 말없이 계속 걸어간다.

민서                   어떠세요?

할머니               이제 좀 먹을 만하네.

신나서 자기 빵을 먹어보는 민서. 너무 맛있다고 깜짝 놀란다.

할머니는 그런 민서를 속 쳐다보고 다시 창고로 향한다.

그때, 창고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화난 목소리.

할머니               야! 이서민! 이거 뭐야?!

민서                   민서라고요... (창고 들어가 보는) 밀가루, 왜요?

창고에 터무니없이 많은 밀가루 포대가 쌓여 있다.

할머니               아니 밀가루가 왜 이렇게 많아??

민서                   어제 밀가루 배달이 왔으니까...

할머니               뭐? 하루이틀 일해?! 밀가루를 이렇게 많이 시키면 어떡해.

민서                   아니 저 한번 시켰는데 사장님 더 시키라고 하셨잖아요?

할머니               미치겠네... 내가 언제 시키라 했어? 일도 제대로 안하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소리 지르며 주문서를 확인하는 할머니. 어리둥절한 민서.

S#11               빵집       밤

어두운 빵집, 할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

홀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메모가 적힌 칠판이 눈에 띈다.

~~전기료 13일까지 납부~~

~~고구마 주문하기~~

~~14일 생일케이크 예약 2시 방문~~

저 서울에서 시험 보고 16일에 올게요! -민서-

주방에서 밀가루를 계량하는 할머니. 그러다 문득

할머니               ...아...몇 그램...이었지? (헛갈려 하는)

평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빵이 오늘따라 어렵고 잘 되지 않는다.

긴장이 많이 된 듯 떨리는 손으로 밀가루 반죽에 재료들 막 넣는다.

빵에다가 파우더를 뿌리는 할머니. 한 입 먹어보는데 맛이 이상하다.  
통을 돌려보면 소금이라고 적혀 있다. 문득 무엇을 깨달은 듯한 할머니.  
뭔가를 찾는 듯 가게를 미친 듯이 뒤진다.

S#12 민서 방 밤

가게를 뒤지다 민서 방까지 온 할머니. 민서의 방으로 들어오자 제빵과 관련된 책들이 보인다.  
넘겨보면, 열심히 필기한 흔적. 뿌듯하게 웃는 할머니, 정신이 돌아오는 듯하다.  
책을 내려놓는데, 뭔가 이상한 마음에 책을 다시 들자 보이는 민서의 공책. ——“슬기로운 빵집생활”  
넘겨보면 민서가 만화로 표현한 일상생활.  
하루에 해야 할 일; 할머니의 제빵법;  
제빵법 뒤로 넘겨보면 할머니의 생활 팁.

민서(Na.)                    퇴근전에 앞치마 풀라고 말씀 드릴 것!  
                                  냉장고에 우산과 지갑이 있는지 항상 확인 할 것!  
                                  레시피 틈틈이 정리해서 붙여둘 것.  
                                  재료 구분할 수 있게 스티커 붙여 놓을 것!

읽을 수록 슬퍼지는 할머니, 눈물이 고인다. 정신 차려서 다시 자기를 보는데  
온몸에 밀가루가 묻어 있고 머리도 부스스하다.  
가게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흠의 불도 어느새 꺼졌다.

S#13 빵집 밤

민서의 방에서 나와 벽을 만지면서 부엌쪽으로 다가가 냉장고 문을 여는 할머니.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할매 레시피”  
할머니가 포스트잇을 뜯으며 슬프게 쳐다본다.  
냉장고 안에 든 빵을 꺼내서 보다가 한 입 먹어보는데 눈물이 또르르 흐른다.  
이내 냉장고 앞에 주저앉는다. 그리고는 손에 든 빵을 계속 먹는다.  
그러다 냉장고에 든 빵까지 꺼내 입에 마구 집어넣는 할머니.  
크림까지 입에 문혀가며 정신 없이 먹던 와중 소리 내어 운다.

S#14 빵집 아침



잠시 후 가게에 들어온 민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놀란다.

민서 (다가 가서) 사장님?!

할머니 (민서를 손님 취급하며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 건네는) 드셔보세요.

민서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할머니 (울기 시작하는) 왜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래요?

민서 (할머니를 부축하며 눈이 빨개진다) 빨리 일어나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드는데, 지저분한 얼굴.

민서가 입가에 묻은 빵을 닦아준다. 그런 민서의 손을 잡는 할머니.

할머니 저 상도 많이 탔어요. 사람들이 다 제 빵 맛있다는데...

민서 지금도 맛있어요! (떨어진 빵을 주워먹는)

할머니 근데 그걸 똑같이 못 만들어.. 다 잊게 생겼어.. 다 잊게 생겼어 (중얼대는)

민서 ...사장님, 저는 기억나요?

민서의 눈을 마주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못들은 척 눈을 피하는.

민서 (다시 눈을 맞추며) 사장님.. 저 봐봐요. 민서예요, 민서.

남자같이 생긴 애... 짜증나게 만든 (강조하는) 서민이.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 (울면서) 기억이 안 나. 요즘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

할머니가 가게 구석구석을 눈으로 살피지만 여전히 기억이 없다.

민서 (할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집에 가요, 빨리.

할머니 (그제야 기억이 난 듯) 나 빵 해야 돼. 빵 만들어야 해..

민서 (마음이 아픈) 그거 좀 안 하면 어때서요!!

할머니가 주방을 향해 가려 하고, 민서는 그런 할머니를 말린다.

다리가 저린지 절뚝이면서도 주방으로 가려는 할머니. 민서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잡는다.

뿌리치려던 할머니가 민서의 화분을 치고, 그대로 떨어져 깨져버리는 화분.

민서 (놀란) 괜찮으세요?!

침묵이 흐르고, 화분을 보는 할머니. 그제야 정신이 든다.

할머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되는대로 되고 싶지 않아.

민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할머니 열심히 사는 게 대수가 아니야.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할머니는 그대로 주방으로 향하고, 민서는 차마 할머니를 잡지 못한다.  
창 밖을 통해 보이는 민서의 모습. 자동차 소음이 들려 온다.

S#15            빵집        낮

진지하게 기를 모으며 밀가루 묻은 손으로 박수를 치는 누군가.

그리고는 반죽을 한다. 경건하고, 진중한 몸짓.

성형한 빵을 오븐 판에 올려놓고, 보이는 이름표 '이서민'.

오븐 문을 닫으면 문에 민서의 얼굴이 비친다. 뿌듯한 민서의 표정.

그때 종소리가 들리고, 민서가 문쪽을 쳐다보면 할머니가 서 있다.

민서                    뭐 드려요?

할머니                (조심스레) 사람 구하셨나요?

칠판에 그려진 민서와 할머니의 모습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으로 바뀌어 있다.

둘의 머리 위엔 하얀 별들이 그려져 있다.

가게 간판이 보이고, (가게이름 = 타이틀)

- The end -